

현 불 뉴스

고려말 사찰 총본산 3천여여성 땀땀정진

통도사 개산대제 봉행
통도사(주지 목산)는 지난 19일~2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제1351주년 개산대제를 봉행했다.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지역문제에 불심을 바탕으로 한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내 각 학교, 예술단체, 신원단체 등이 참석했다.

무장공비 침투 규탄

대한불교총동원총회(회장 일종)는 지난 15일 북한무장공비 침투 및 양민학살과 관련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한은 민족의 양심으로 괴물이자 억지병과 전쟁도발행동 등을 중지하고 한국정부와 UN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문경 모전복지관 개관

문경 모전사회복지관(관장 현관스님)이 11월 15일 개관을 앞두고 오는 29일 문경 김홍사에서 개관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사회복지법인 대경시 사암연합회(회장 지광)가 운영하게 된 복지관은 건물 3백60평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어린이집, 노인정,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도서실, 컴퓨터실 등이 들어선다.

13기 생태학교 개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문)은 오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제13기 생태학교를 개설한다. 이번 환경교육에는 전영우교수(국민대)의 '전지구적 생태위기와 인류의 미래' 등 15회 강좌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환경교육원 강의실에서 개설된다.

부산대불련 창립 31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총회(회장 옥치담)는 오는 26일 창립 31주년을 맞아 통도사 부산 포교원에서 창립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27일 청소년 어울마당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진주지부(지부장 김기원)는 오는 27일 진주 산업대에서 청소년 체육대회 및 어울마당을 개최한다.

이문옥씨 파면 취소

감사원 전 감사관 이문옥씨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이 지난 11일 사건발생 6년5개월만에 열려 파면처분 취소 확정판결됐다.

회암사지 복원 움직임

민·官합동 내년 발굴작업... 2006년까지 정비계획

사적지구 사유지 토지매입 '난항'

천년고찰 회암사지가 지역의 관광과 주민들에 의해 복원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회암사지(사적 128호)는 고려말 전국 사찰의 총본산이었고 지금 나온 무학 3대회상을 비롯 3천여명의 스님들이 땀땀 정진했던 대찰.

이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97년부터 3천여여의 예산을 들여 2006년까지 기단발굴 및 복원 정비, 사적지 매입, 담장설치, 주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복원추진위원회 구성, 회암사지에 대한 포럼 및 캠페인 활동을 펼쳐 회암사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복원불가피성과 우리문화유산 소중히 여기는 풍토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회암사지내 토지 총 3만1천9백47평 가운데 약 60%인 1만8천4백24평이 중앙고교와 계단 이사장인 임형빈씨의 소유로 되어 있어 정비 및

보호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양주군측은 사적지지구내 개인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유주

복원추진 회천청년회 이상원 초대회장

"옛모습 재건... 국민정신 수양처로"

이상원씨(양주군의회·회천청년회 초대회장)는 "회암사지를 복원하는 것은 양주군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토지매입, 예산부족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옛모습을 재건할 수 있

도록 진력할 계획입니다. 청년회 창립부터 회암사지 복원을 시작한 이래는 원력은 간절하다. 이씨는 "불교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회암사지의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날로 황폐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측은 절대불가의 입장으로 답보 상태다. 또한 문화재관리국, 종단 등 관계기관의 무관심으로 인해 사찰 건축물의 변천을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암사지의 복원이 늦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회천청년회측의 안타까움이다.

(양주=김종근 기자)



10년간의 불사로 위용을 드러낸 천안 각원사 대웅보전 낙성식이 지난 15일 봉행됐다. (천안=임연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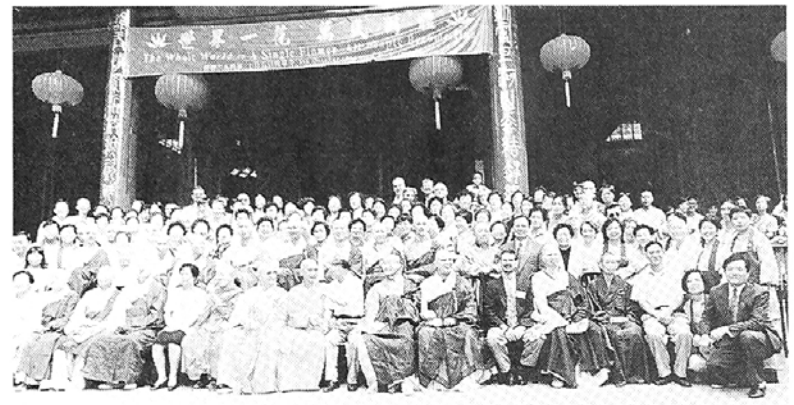
천안 각원사 국내최대 대웅전 낙성

2백평규모 10년 불사... 법인스님 출가 50년 통일발원

단일건물로는 국내 최대인 2백평 규모의 천안 각원사 대웅보전에 10년간의 불사를 마무리하고 그 위용을 드러냈다. 올해 출가 50주년을 맞는 각원사 주지 법인스님은 통일발원 불사로 추진한 대웅보전 낙성식을 지난 15일 2만여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직지사조실 관음스님 마곡사조실 정영스님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 동국학원 이사장 복원

스님 조계종총무원장 원주스님 총회회장 설경스님을 비롯 대덕스님과 서문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심대령 총법사 이한동 국회부의장 이근영 전안시장등 각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삼존불과 후불탱화의 점안에 이어 12인의 타종과 현관식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주지 법인스님은 고불(佛佛)을 통해 '태조신에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도량을 열어 청

동대불과 범종을 조성한후 이토록 장엄한 대웅보전을 축조한 것은 우리 국민과 인류의 염원을 살피시는 부처님의 무한한 가피력'이라며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이 도량이 민족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약속했다. 이날 낙성된 대웅보전은 전면 7칸 측면 4칸에 외포 2칸의 목조건축물 총공사비 55억여원을 들여 10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제4차 세계일화대회가 지난 5일 중국 광둥성 남화사에서 봉행됐다. '세계일화 만민통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한국측 주최자인 송산스님(회계사 조실)과 국내신도 70여명, 미국 캄보디아등 각

"세계는 하나의 꽃"

제4차 세계일화대회가 지난 5일 중국 광둥성 남화사에서 봉행됐다. '세계일화 만민통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한국측 주최자인 송산스님(회계사 조실)과 국내신도 70여명, 미국 캄보디아등 각

국 대표와 중국 현지인등 4백여명이 참가했다. 송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6조 해능스님이 법을 퍼신 남화사의 거룩한 도량에서 이 대법회를 갖게 된 것은 세계일화의 정신이 온 세계에 퍼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화사 주지 불원스님은 '세계인류가 부처님 법을 받들고 화평의 축가를 부를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석굴암 콘크리트돔 '이상'

균열·누수발견... 정부차원 안전진단 시급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석굴암(국보 제24호) 내부 콘크리트 돔에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견돼 정부차원의 안전진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홍교수(동국대 산업기술연구소)는 "불국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월 '석굴암에 대한 구조물 진동문제와 안전도 1차 조사'를 발간 결과 석굴 의벽을 덮는 내부 콘크리트 돔에 폭 2mm, 길이 5m 이상의 균열이 생겼으며, 외부 콘크리트돔에서는 누수 및 결로현상(이슬

맺힘)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정기영 문화재관리국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균열부분은 61년 10월 석굴암 보수공사때도 이미 발견됐던 것으로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록에 앞서 실시한 안전진단에서도 석굴암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또 61년 석굴암 보수공사에 참여한 이태남박사(서울대 명예교수)는 "석굴암 안전에는 아

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보수한지 30여년이 지난만큼 안전진단 등 종합적 점검은 한번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홍교수(교원대 박물관장)도 "석굴암은 2중돔으로 돼 있어 누수가 일어날 수 없으며, 균열부분은 좀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중성교수(동국대 고고미술학과) 역시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는 만큼 정부차원의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관스님 즉각 석방하라"

종교인협 안기부 집회... 종회도 투명수사 촉구

안기부의 진관스님 연행을 규탄하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함세웅)가 지난 11일 안기부 후원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진관스님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천안 각원사

수호사 구화산 순례

수호사가 '김교각전' 기획행사의 일환으로 이달말 출발 예정이던 구화산 순례순례가 내

북 테러불안 '연기'

수호사가 '김교각전' 기획행사의 일환으로 이달말 출발 예정이던 구화산 순례순례가 내

종교지도자 세미나

24·25일 울림피아호텔 등 문화체육부와 한국종교인류화회의(KCRP)가 공동주최하는 '96 종교지도자 세미나가 24, 25일 라마다울림피아호텔과 천주교 함마음수련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와 종교인간의 대화'와 '종교계 청소년교육의 현황과 전망' 주제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불교관계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

조계종, 사찰환경권·전사법등 당국과 협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기 국회 기간동안 불교관련법령을 제·개정한다는 방침으로 문체부와 국회 정국회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불교계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구속한 것은 공권력의 횡포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실추를 자처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경의지 세금부과 부당 '대책호소'

범어서, 총무원에 탄원

부산 범어서(주지 성오)는 지난 10일 총동포 체납에 따른 범어서 재산공매처분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범어서는 탄원서에서 "부당한 세금부과로 소속 승려들이 수행

합찬 한마음선원 범행체회

마음 지금과 달라지면

묵역 놓지 않으면 부자상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너를 보리라' 했는데 고정만법이 죽지않고, 이상이 죽지않고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 그대로 지내면 아무리 노력을 해보았자 지금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착을 버려야 닥쳐오는 범고역만을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어렵다. 버리면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지금과 달라지게 없습니다. (한겨레유언전)

합찬 한마음선원 범행체회

합찬 한마음선원 범행체회

합찬 한마음선원 범행체회

Advertisement for '전통 속 좌우기 생' (Traditional Left-Right Qi Life) featuring a product image,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cross Korea.